



옥돌가마

김명철

1

수양산마루에 올라선 청득이는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깎아지른듯 한 절벽 중턱에 기와집 한채가 보였습니다.

(어머니, 수양산 도사할아버지네 집에 나왔어요.)

청득이는 멀리 고향의 하늘가를 바라보며 입속으로 말했습니다.

순간 청득이의 귀에는 《청득아, 꼭 장수가 되어 돌아오거라.》 하시던 어머니의 말이 쟁쟁히 들려왔습니다.

청득이는 어머니와 단둘이서 살았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청득이가 일곱살 잡히던 해 전장에서 숨졌답니다. 선봉장이 되어 용맹 떨치던 아버지는 놈들의 화살에 맞아 눈을 감으면서 아들을 꼭 장수로 키워달라는 부탁을 남겼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청득이 어머니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여보, 걱정마세요. 당신의 부탁대로 청득이를 장수로 키우겠어요.)

그날부터 청득이 어머니는 어린 자식을 엄하게 키웠습니다. 낮에는 산을 달리며 활쏘기를 시켰고 밤에는 광술불을 켜놓고 글을 배워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청득이가 힘들다고 응석을 부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아들의 응석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엄하게 키웠습니다.

청득이가 열살이 되던 어느날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청득이를 불러앉혔습니다.

《청득아, 넌 래일 집을 떠나야겠다.》

《뭘라고요? 집을 떠나다니요?》

너무도 뜻밖의 소리에 청득이는 놀랐습니다.

쥐면 부서질가, 퍼면 날아갈가 온갖 정성을 기울이며 키워온 청득이를 멀고 험한 산속으로 보내려는 어머니의 마음은 아팠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애써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난 너를 수양산 도사할아버지한테 보내기로 결심했단다.》

그리고는 장농을 열었습니다.

《청득아, 이걸 가지고가거라. 이 옥돌가마가 너를 도와줄게다.》

어머니는 청득이에게 옥돌가마를 주었습니다.

그리 크지 않은 옥돌가마는 하얀빛이 반짝거렸습니다.

《어머니, 이 옥돌가마 참 희한하네.》

청득이는 머루알같은 눈을 반짝이며 어머니를 쳐다보았습니다.

《사내가 열살이면 작지 않다. 난 너를 아버지의 뜻대로 장수로 키우려다. 그래서 수양산에 보내려고 결심했단다. 꼭 장수가 되어 돌아오거라.》

그제서야 청득이는 어머니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뜻을 잊지 않겠어요.》

《그래야지, 용타.》

청득이 어머니는 웃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각 어머니가 속으로 울고있는줄 어린 청득이는 몰랐습니다.

이렇게 되어 청득이는 수양산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2

도사할아버지네 집은 퍼그나 아담했습니다.

때마침 도사할아버지가 마당에서 칼쓰기를 하고있었습니다.

《안녕하시오이까? 할아버지.》

칼쓰기를 멈추고 돌아보던 도사할아버지는 놀랐습니다. 어머니품에서 한창 응석을 부릴 어린 사내아가가 나타났으니깐요.

둥그스름한 얼굴에 오흘하게 날이 선 코, 꼭 다물린 입, 반짝이는 눈. 여간 만만치 않아보였습니다.

《넌 누구냐?》

도사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청득이는 도사할아버지에게 수양산에 오게 된 사연을 그대로 말했습니다.

《그러니 네가 획획장수의 아들이란 말이지.》

도사할아버지는 정깊은 눈길로 청득이를 보았습니다.

청득이 아버지가 싸움판에서 획획 날며 외적을 삼대베듯 하였으니 그렇게 불렀던 것이었습니다.

《저를 장수로 키워주소이다.》

청득이는 도사할아버지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기특하도다. 어서 일어나거라.》

좀 있어 도사할아버지가 품속에서 자그마한 피리를 꺼내 불었습니다.

아름답고 은은한 피리소리가 울리자 숲속에서 새끼사슴 한마리가 달려왔습니다.

《야! 애기사슴!》

청득이는 좋아했습니다.

《청득아, 그럼 훈련을 시작하자. 애기사슴과 산판을 달려 이겨야 한다.》

도사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걱정마시오이다. 아무렴 애기사슴한테 지겠소이까?》

청득이는 씩－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우쭐해서 보란듯이 달렸습니다. 애기사슴도 함께 달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겠나요.

애기사슴이 청득이를 뒤에 뺨구고 앞서 달렸어요.

(하, 조꼬만게 잘 쫓는다.)

청득이는 힘껏 달렸습니다.

그러나 애기사슴을 따라잡을수가 없었습니다.

앞서 달리던 애기사슴이 멈춰서서 뒤를 보다가는 청득이가 거의 가까이 달려오면 어서 날 잡아보라는듯 다시 돌아서 숲속을 달렸습니다.

청득이는 은근히 뻘이 났습니다.

청득이는 가쁜숨을 쉬며 멈춰섰습니다.

《왜 멈춰섰느냐?》

도사할아버지의 꾸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청득이는 흠칫 놀라 다시 달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를 쓰고 달렸지만 애기사슴을 따라잡을수가 없었습니다.

《선생님, 산에서 뛰어다니는 애기사슴을 이길수 있겠소이까?》

산을 내려온 청득이가 불이 부어 증얼거렸습니다.

《애기사슴도 앞서지 못하는게 어떻게 장수가 될수 있겠느냐?》

도사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청득이는 맥이 없어 방에 들어와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은 땅으로 잣아드는것만 같았습니다.

한동안 멍해있느라니 한쪽에 있는 옥돌가마에로 눈길이 가면서 배가 고했습니다.

(이렇게 힘들 땀 약밥을 먹었으면 좋겠네.)

청득이는 약밥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청득이 어머니는 명절날이나 생일때면 종종 약밥을 해주곤 했습니다.

청득이가 그때일을 생각하는데 갑자기 옥돌가마에서 쇠－ 하며 하얀 김이 뿜어져나왔습니다.

《엉?!》

깜짝 놀라 멍멍해하던 청득이는 옥돌가마를 열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겠습니까.

글쎄 옥돌가마안에 대추, 밤, 꿀, 쌀 그리고 참기름이 섞인 붉은 밤색의 빛갈이 곱게 물든 먹음직스러운 약밥이 한가득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야! 약밥이로구나.》

눈이 화등잔만 해진 청득이는 너무도 신기해서 이게 꿈은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약밥은 정말 맛있었습니다. 금시 허까지 살살 넘어가는것 같은게 어머니가 해주던 약밥과 똑같았습니다.

금시 온몸에 기운이 솟았습니다.

(이 옥돌가마는 정말 신기하구나. 어머니는 이런 신기한 옥돌가마를 어디서 구했을까? 어머니, 약밥을 먹으니 힘이 나요. 꼭 애기사슴을 앞서 달릴래요.)

청득이는 자리를 차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는 숲속을 달렸습니다. 밤이 깊도록 달리고달려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운이 더 솟아났습니다. 청득이는 더 힘차게 달렸습니다. 귀뿌리로 나무들이 훑훑 지나갔습니다.

도사할아버지가 어둠속에서 청득이를 지켜보았습니다.

은 높고 힘했습니다.

《선생님, 저 벼랑산은 오르기가 힘들것 같소이다.》

청득이는 걱정이 실린 눈으로 도사할아버지를 쳐다보았습니다.

《올라보지도 않고 겁을 먹다니. 어서 오르거라. 어떤 일이 있어도 산양보다 먼저 올라야 한다.》

도사할아버지가 엄하게 말했습니다.

《알겠소이다.》

청득이는 벼랑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오를수가 없었습니다. 한발, 두발 겨우겨우 오르던 청득이는 그만 미끄러지고 말았습니다.

아-

한참만에야 일어난 청득이는 얼굴을 찡그린채 아찔한 벼랑산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산양은 벼랑산을 쉽게 올라가는것 이였습니다.

벼랑산을 오르던 산양이 아래를 내려다보며 어서 올라오라는듯 매- 매- 소리를 냈습니다.

어찌 보면 자기를 끌어주는것만 같아 청득이는 슬그머니 약이 울랐습니다.

사실 산양들은 발바닥이 끈적끈적해서 미끄러지거나 떨어지지 않고 벼랑을 오르는것 이랍니다.

3

하루, 이틀, 사흘...

청득이는 끝내 애기사슴을 따라 앞설수 있었습니다.

《선생님, 애기사슴을 앞섰소이다.》

청득이는 너무 기뻐 어쩔줄 몰랐습니다.

《용타.》

도사할아버지가 대견해하며 피리를 불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산양이 달려왔습니다.

《청득아, 오늘은 저 벼랑산을 오르거라.》

도사할아버지의 말에 청득이는 놀랐습니다.

온통 바위로 이루어진 벼랑산



(산양은 벼랑산을 쉽게 오르는가.)
청득이는 부러운 눈으로 산양을 멍하니
보지만 할뿐 선뜻 오르지 못했습니다.

《왜 머뭇거리는가? 어서 오르지 못할
가?》

도사할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청득이는 이를 악물고 다시 올랐습니다.

오르다가는 미끄러지고 미끄러지면 다시
오르고... 그러기를 수십번만에야 청득이는
겨우 바위산을 오를수 있었습니다.

무르팍은 찌지고 터져 피가 흘렀고 손끝
은 닳아 아리고 쓰러졌습니다.

《선생님, 벼랑산 오르는 힘드오이다.
산양을 이길수 없나이다.》

청득이는 기여들어가는 소리로 말했습
니다.

《뭐라구? 장수가 되겠다면서 벼랑도 오
를수 없다구?》

도사할아버지의 얼굴엔 동정의 빛이 조금
도 없었습니다.

어깨가 축 처진 걸음으로 산을 내린 청득
이는 방에 들어서며 쓰러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벼랑산을 척척 오를수 있을
가? 가만, 찰밥을 먹으면 어떨가? 그러면 착
착 달라붙어 산양을 이길지도 몰라.)

불쑥 이런 생각이 들어 청득이는 옥돌가
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옥돌가마에서 좌- 하며 김이 뿜
어나왔습니다.

(정말 찰밥이 생겼는지도 몰라.)

청득이는 옥돌가마를 열었습니다.

옥돌가마에는 정말 기름이 찰찰 도는 눈
같이 하얀 찰밥이 생겨났습니다.

《히야! 찰밥!》

청득이는 손뼉을 쳤습니다.

(어떻게 내 생각을 척척 알아맞힐가?)

청득이는 이런 신기한 옥돌가마를 어머니
가 어디서 구했을까 하는 생각이 자꾸자꾸
들었습니다.

《어머니, 찰밥을 맛있게 먹었어요.》

청득이는 어머니가 곁에 있기라도 한듯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마 있느라니 알지 못할 기운이 온몸에
부쩍부쩍 솟아났습니다.

(어머니, 참 이상해요. 옥돌가마의 밥을

먹으면 이렇게 새힘이 자꾸자꾸 넘쳐나거
던요.)

하루빨리 장수가 되길 바라는 어머니의
소원을 새겨보던 청득이는 자리를 차고 일
어섰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꼭 벼랑산을 오를테야.)

청득이는 이렇게 결심하고 벼랑산을 올랐
습니다.

벼랑산은 험하고 가파로왔습니다. 그러나
청득이는 한치한치 올랐습니다.

한번이 다르고 두번이 달랐습니다.

열번을 오르니 점점 쉬웠고 스무번을 오
르니 뿔뿔 날아오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산양보다 벼랑산을 먼저 오르군
했습니다.

도사할아버지가 몹시 대견해하셨습니다.

옥돌가마는 참으로 신기했습니다.

청득이가 먹고싶어하는것은 무엇이나 다
생겨났습니다.

옥돌가마의 덕으로 청득이는 배고픔도 힘
든줄도 몰랐습니다.

《옥돌가마야, 정말 고마워.》

청득이는 때없이 옥돌가마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청득이는 몰라보게 달라졌
습니다.

키도 무척 컸고 힘도 부쩍 세졌습니다. 몸
도 더욱 좋아졌습니다.

4

어느덧 삼년세월이 흘렀습니다.

청득이는 그동안 도사할아버지가 배워준
대로 무술을 익혔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훈
련도 묘술을 끝까지 터득했고 손에 익히기
전에는 잠을 안 잤습니다.

날이 감에 따라 훈련은 점점 더 힘들었
습니다.

하지만 옥돌가마가 있어 걱정은 없었습
니다.

어느날이였습니다.

온종일 큰 바위를 들어 멀리 던지는 훈
련을 하고난 청득이는 옥돌가마를 열었습
니다.

순간 청득이의 두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엉?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옥돌가마안에는 노란 조밥이 들어있었습니다.

(조밥은 꿈에도 생각지 않았는데…)

청득이는 대뜸 불이 부었습니다.

조밥은 다음날에도, 그 다음날에도 생겨났습니다.

《내 생각을 척척 알아맞추던 옥돌가마가 요즘은 어떻게 된걸까? 예익, 조밥은 먹기가 싫어.》

청득이는 기분이 없어 중얼거렸습니다.

수양산에 온 첫날부터 약밥이면 약밥, 찰밥이면 찰밥, 흰쌀밥이면 흰쌀밥, 게다가 볶음밥, 비빔밥에 닭알밥, 송이버섯밥까지 갖가지로 생겨나던 옥돌가마에 어떻게 되어 먹기 싫은 조밥이 생겨나는지 영문을 알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조밥도 며칠뿐이었습니다.

얼마후에는 강낭밥이 생겨나더니 얼마 못가서 귀밀밥이 생겨났습니다. 그나마 또 얼마 지나서는 보리밥이 생겨났습니다. 밥량도 점점 작아졌습니다.

(옥돌가마가 이제는 신기한 재간이 다 빠진것이 아닐까? 흥, 이따위 강낭밥, 보리밥이나 먹고 어떻게 장수가 된단 말이야? 어머니는 이걸 아실까?)

이제는 그렇게 신기하게 보이고 귀하게 여겨지던 옥돌가마가 하찮게 여겨졌습니다.

기분이 없어 그늘밑에 누워있는데 나무잎 하나가 청득이의 얼굴에 떨어져내렸습니다.

나무잎을 물끄러미 보느라니 서글썩습니다.

(아지에서 떨어진 나무잎이 불쌍하구나. 자식도 품안에 있을 때 자식이라더니… 몇해가 지났으니 어머니가 나를 잊으신게 아닐까? 요즘 귀밀밥, 보리밥을 몇순갈 대충 뜨고 혼련하고있는줄을 어머니는 모르실거야.)

저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날마다 (집에 한번 가볼까?) 하고 생각하던 청득이는 어느날 산을 내렸습니다.

《어머니—》

마당에 들어선 청득이는 어머니를 부르며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없었습니다.

(퇴약별이 쏟아져내리는 무더운 날에 어머니는 어디 가셨을까?)

청득이가 머리를 기웃거리는데 《청득이가 왔구나.》하는 소리가 등뒤에서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좌상할아버지가 뜰안으로 들어서는것이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어디 가셨나요?》

청득이는 좌상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너의 어머니는 노루재등에 있을게다. 날마다 밭에서 산단다.》

좌상할아버지의 말에 청득이는 되물었습니다.

《그건 왜요? 먹을것이 없나요?》

청득이는 의아해하였습니다.

《청득아, 너의 어머니는 네가 수양산에 간 그날부터 늘 밭에서 산단다. 마을사람들이 좀 쉬라고 하면 〈그럴수 없어요. 내가 부지런히 일해야 그 애의 배가 곱지 않아요.〉 하면서 새벽에 나갔다가 밤이 깊어서야 들어오곤 했지. 어느날에는 일하다가 쓰러진걸 사람들이 업고왔단다. 밤새 정신을 잃고 헛소리치며 앓던 너의 어머니가 그 이튿날 또 밭으로 나가지 않겠니. 사람들이 죽자고 그러는가 하면서 앞을 막자 너의 어머니는 〈요즘 같아서는 청득이에게 조밥이나 강낭밥도 못 먹일것 같아요. 지난해는 무더기비때문에 농사를 못 지었는데 올해는 몇달째 왕가물이 들어 곡식들이 말라가고있으니 어찌면 좋아요.〉 하면서 휘청거리는 걸음으로 밭에 나가더구나. 자기는 굶으면서 자식을 위해 바쳐가는 너의 어머니같은 사람은 쉽지 않아.》

좌상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몹시 갈렸습니다.

청득이는 더는 있을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청득이는 노루재등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바로 그때 청득이 어머니는 노루재등에 있는 자드락밭머리에서 한숨을 쉬고있었습니다.

너무도 말라 논들도 터갈라지고 써도 모

두 말라들었습니다. 뜨거운 불벌이 쏟아져 내리며 땅우의 모든것들을 지켰습니다. 새들새들 말라드는 곡식을 보는 어머니의 가슴은 찢어졌습니다.

(올해에도 또 농사를 망치면 어쩌나? 지금 청득이가 변변히 먹지도 못하고 배를 굶고있겠는데. 그래도 옥돌가마가 있으니… 아니야, 이 에미가 제대로 농사를 짓지 못했는데 옥돌가마인들 별수가 있을라구.)

청득이 어머니는 옥돌가마를 얻던 때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날도 김을 매며 (이제는 청득이를 수양산에 보내야겠는데.) 하는 생각에 골똘해있던 어머니는 애처로운 비명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소리가 난 곳으로 허둥지둥 달려간 청득이 어머니는 흠칫 놀랐습니다. 큰 구렁이가 이름모를 흰 새를 칭칭 감고있었습니다.

《이놈—》

청득이 어머니는 무작정 손에 들고있던 호미로 구렁이를 내리쳤습니다. 구렁이는 몸을 뒤틀더니 도망치고말았습니다.

청득이 어머니는 끔찍스러워 눈을 꼭 감았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이런 말에 눈을 뜨던 어머니는 어안이 병병했습니다. 방금 있던 흰 새는 없고 뜻밖에도 아릿다운 처녀가 인사를 하는것이였으니 까요.

(아니?!)

어리둥절해하는 청득이 어머니에게 처녀는 말했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전 동해에 있는 룡왕의 손녀랍니다. 새가 되어 땅세상을 구경하했는데… 그만 구렁이놈이…》

처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얀 저고리를 입은 처녀의 모습은 우아했습니다.

한동안 처녀를 바라보던 어머니는 저도 모르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길 떠나면 고생이지. 우리 청득이도 이제 먼길을 떠나보내야겠는데 걱정이구만.》

처녀는 어머니의 근심어린 얼굴에서 말 못할 사연을 읽었는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저… 무슨 걱정거리라도…》

청득이 어머니는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난 아버지의 뜻대로 아들을 장수로 키우려다네. 그런데 멀고먼 수양산으로 가는 어린 자식에게 먹을것을 지워보낼수도 없고 그렇다고 내가 밥을 해가지고 다닐수도 없지 않나. 길고긴 나날 그 애가 배를 굶지 말아야겠는데…》

그 말에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겨있던 처녀는 방그레 웃음을 지으며 들고있던 보통이에서 무엇인가 꺼내놓았습니다.

《이건 룡궁의 보물인 옥돌가마예요. 자식을 위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따끈따끈한 밥이 되어 생겨나는 신기한 옥돌가마랍니다. 저의 어머니가 먼길에는 길량식이 든 든해야 한다면서 넣어주신거예요. 이걸 아드님께 주세요. 그러면 아드님은 굶지 않을거예요. 그런데 옥돌가마에는 있는것만큼 생겨난답니다. 아무리 자식을 걱정하는 마음이 크다 해도 어머니가 농사를 지은것이 없으면 옥돌가마엔 아무것도 생겨나지 않아요.》

처녀는 옥돌가마를 어머니에게 안겨주고 떠나갔습니다.

신기한 옥돌가마는 이렇게 되어 생긴것이랍니다.

그때일을 생각하며 청득이 어머니는 가슴을 쳤습니다.

(아, 어쩌면 종단 말이나? 왕가물에 곡식들이 모두 말라가고있으니 이러다가는 청득이에게 피밥도 제대로 못 먹이겠구나. 물… 물… 물…)

청득이 어머니의 얼굴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한방울, 두방울…

눈물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떨어진 곳에서 아니글썩 짙은 물이 뽕뽕 솟아올랐습니다.

(아니?! 샘물이?!)

청득이 어머니는 찰랑거리는 샘을 보기만 했습니다.

바로 이때 노루재등에 올라선 청득이는 어머니를 보고 달려가다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웬일인지 어머니가 그늘비긴 얼굴로 샘을

물끄러미 들여다보고있었습니다.

그런데 썸에서 무슨 말소리가 났습니다.
청득이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푸지 마세요 푸지 마세요
나를 푸면 어머니는
할머니로 된답니다

(뭐? 할머니로 된다고?)

청득이는 놀랐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썸앞에 앉으며 이렇게 말하는것이었습니다.

《썸물아, 말라가는 곡식들을 살릴수만 있다면 그게 무슨 대수겠느냐. 수양산에 가 있는 청득이를 배불리 먹여야겠는데 아득바득 일해도 그렇게 안되는구나. 그 애한테 보리밥이나 피밥도 못 먹일것 같은게 안타깝구나. 썸물아, 난 할머니가 된다 해도 청득이를 위해서라면 웃으며 풀테야.》

그리고는 썸물을 푸는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까만 머리칼이 희끗희끗해졌습니다.

《어머니, 그만두세요.》

청득이는 새된 소리를 지르며 달려왔습니다.

《아니, 청득이가?! 네가 어떻게 왔느냐?》

어머니는 놀라며 반기었습니다.

청득이는 할말이 없어 머리를 숙이었습니다.

기쁨의 빛이 떠돌듯 하던 어머니의 얼굴이 흐려졌습니다.

얼마나 보고싶던 청득입니까.

얼마나 기다리던 아들입니까.

이 순간 어머니는 청득이를 품에 꼭 안아주고싶었습니다. 그러나 옹어지는 마음에 채찍질을 하며 어머니는 청득이를 호되게 꾸짖었습니다.

《수양산으로 당장 돌아가거라.》

어머니는 아들을 본척도 안하고 썸을 뒹습니다.

머리칼이 눈에 뜨이도록 더욱 희어져갔습니다.

《어머니, 그만두세요. 그까짓 곡식이 뭐라고 젊음을 바치겠나요?》

청득이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는 말없이 청득이의 손을 뿌리치더니 곡식들에 썸물을 부었습니다. 바삭 말랐던 땅에 짹짹 소리를 내며 물이 잦아들었습니다. 그러자 곡식들이 잎을 펼치며 쑥쑥 자랐습니다.

《어머니, 제발 빌어요. 난 피밥을 먹어도 좋고 배를 곱아도 좋으니 그만두세요.》

청득이는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잊었느냐? 장수가 되기 전에는 어머니앞에 나타나지 말어라. 아, 가슴이 터진다. 너같은 못난 자식들때문에 어머니들이 늙는거야.》

어머니는 휘청거리며 썸으로 갔습니다.

한번두번 풀수록 얼굴에는 얼기설기 주름살이 패이었습니다. 그처럼 아름답던 모습은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그 어떤 눈물이나 애원으로써도 어머니가 하는 일을 막을수 없다는것을 청득이는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수양산으로 돌아가겠어요.》

청득이는 발길을 돌렸습니다.

(아, 내가 너무도 몰랐구나. 끼니때마다 구미에 맞는 음식이 생겨나는것이 옥돌가마의 신기한 재간이 아니라 자식을 위하는 어머니의 뜨거운 마음이었구나. 그런데 난 어머니가 온 육신을 바쳐가며 아글타글 농사를 지었던만 강낭밥이라고 타발하고 조밥이라고 밀어놓았지. 자식을 위하는 어머니의 사랑은 멀리 있어도, 날이 가도 정녕 변함이 없구나. 헌데 난 어머니의 진실한 마음을 의심하고 저울질까지 했으니 내가 무슨 자식이란 말이나?)

청득이의 눈에선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은 후회의 눈물이었습니다. 아니, 맹세의 눈물이었습니다.

6

(어머니, 용서하세요.)

청득이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뇌이며 밤과 낮이 따로없이 무섭게 훈련을 했습니다.

옥돌가마가 청득이를 도와주었습니다. 옥돌가마에서는 청득이가 먹고싶어하는 모든 것들이 꼭꼭 생겨났습니다.

칭득이는 그 모든것이 어머니가 애써 농사를 지은 덕이라는것을 너무도 잘 알고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고마워요.)

칭득이는 어머니의 그 마음을 안고 훈련을 꾸준히 해나갔습니다.

날은 흘러 이제는 칭득이가 도통하지 못한 도술이 없었습니다.

말타고달리며 장검휘두르기, 눈감고 삼백보앞에 있는 술방울 활로 맞히기, 순간에 없어졌다 나타나기 등 막히는것이 없었습니다. 하루종일 칼로 폭포를 베어도 칼날에 물한방울 묻지 않았습다.

누구도 칭득이의 재간을 따르지 못하고 당하지도 못할것입니다. 그러나 칭득이는 훈련을 조금이라도 늦추거나 게을리하지 않았습다.

그사이 날과 달은 살같이 흘러 해는 몇번이나 바뀌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이였습니다.

도사할아버지가 칭득이를 불렀습니다.

《칭득아, 이제는 수양산을 내려가거라.》

《선생님, 그게 무슨 말씀이시오이까?》

너무도 뜻밖의 말이였습니다.

《난 너에게 배워줄것은 다 배워주었다. 지금 섬나라 오랑캐놈들이 바다를 건너와 날뛰고있다누나. 이제 며칠 있으면 저 락랑벌에서 사냥경기가 있다. 꼭 장수가 되거라.》

도사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알겠소이다. 선생님, 부디 건강하시오이다.》

칭득이는 깊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오냐, 잘 가거라.》

칭득이를 배웅하는 도사할아버지의 눈굽은 축축히 젖어올랐습니다.

며칠후 칭득이는 사냥경기에서 제일 많은 짐승들을 잡아 장수로 뽑혔습니다.

(어머니, 기뻐하세요. 이 아들은 장수가 되었어요. 어머니의 뜨거운 사랑이 없었다면 제가 어찌 장수로 될수 있었겠나요. 나라를 위한 길에 자식을 내세우려는 어머니의 그 마음을 가슴에 새길 때만이 진짜 장수가 될수 있음을 명심하겠어요. 오늘따

라 어머니가 더욱 그립군요. 그러나 고향으로가 아니라 싸움판으로 달려가겠어요. 어머니의 사랑이 넘쳐나는 옥돌가마를 품고 말이에요. 이 땅에서 오랑캐놈들을 쓸어버리고 돌아가겠어요. 어머니, 기다려주세요.)

번쩍거리는 갑옷을 입은 칭득이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웨치며 말몰아 전장으로 달려옵니다.

그날로부터 얼마 지나서였습니다.

《요즘 전장에 새파랗게 젊은 장수가 나타나 오랑캐놈들을 갈대베듯 한다누만.》

《오랑캐놈들은 그 장수만 나타나면 줄행랑을 친다누만.》

《대단하지. 모두들 훨훨장수라고 부르대요.》

《그게 바로 획획장수의 아들이라지 않소. 그 아버지애 그 아들이라더니 참.》

장거리에 가도, 고을에 가도, 산골마을에 가도 사람들은 모여앉아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그럴 때면 칭득이 어머니는 무척 기뻐했습니다.

칭득이 어머니는 아들이 큰공을 세우고 개선장군이 되어 돌아올 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하늘도 맑게 개인 어느날 오랑캐놈들을 모조리 쳐물리친 자랑을 안고 아들이 고향마을에 뿔뿔이 들어섰던것입니다.

《칭득아— 내 아들이야.》

어머니는 림림한 장수가 된 아들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네가 끝내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구나. 부모의 뜻을 이룬 너야말로 진짜 효자다. 이 어머니는 십년은 젊어진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어머니의 얼굴에는 기쁨의 미소가 가득 어렸습니다.

순간 하얗게 세어버렸던 어머니의 머리가 다시 칠흑같이 검어졌습니다.

고향마을사람들은 물론 온 고을사람들이 훨훨장수와 그의 어머니에게 축하의 꽃보라를 아낌없이 뿌려주었습니다.